

HOME 뉴스 생활/정보

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이범호 주임, '자살예방' 유공, 김포경찰서장 표창

편집국 승인 2025.09.10 20:25



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 근무하는 이범호 주임이 지난 1일 새벽에 발생한 자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명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포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.

이날 경찰은 지인에게 자살 의사를 밝힌 뒤 연락이 두절된 시민을 긴급 위치추적한 결과, 김포간선 양능제수문 인근으로 확인하고 공사에 협조를 요청했다.

새벽 2시경 연락을 받은 이범호 주임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제수문 위치 안내와 CCTV를 신속히 열람할 수 있도록 소방대와 경찰의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.

또, 당일 오전 6시로 예정된 양수를 사고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연시켜 혹시 모를 2차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위기 상황에 대응을 펼쳤다.

그 결과 자살 시도자는 안전하게 귀가해 큰 사고 없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.

이범호 과장은 “긴박한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”이라며 겸손한 소감을 전했다.

편집국 mr@gimpo.com

<저작권자 © 미래신문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인쇄하기